

자영업자의 기업가적 자본과 소득에 관한 연구

김중성*, 신재열**, 김도현***

본 연구의 목적은 자영업자의 진입과 소득에 있어 기업가정신, 기업가적 자본이 중요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의 소득결정요인을 인적자본 및 기업가적 자본을 중심으로 탐색적으로 규명해 보는데 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적자본과 관련하여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영업자의 시간당 소득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다. 이는 임금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자영업자에게 있어서도 인적자본의 축적이 수익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자영업자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기업가적 자본이 자영업자의 시간당 소득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소득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 및 인적자원 개발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요용어 : 자영업자, 기업가정신, 인적자본, 기업가적 자본, 소득결정요인

1. 서론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2018년 564만에서 2019년 560만, 2020년 553만으로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9년 기준 OECD 38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24.6%로 6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전체 자영업자의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1인 자영업자는 2011년 413만, 2017년 407만에서 2020년 415만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새롭게 자영업을 선택하고 진입하려는 추세는 여전하다. 특히 전체 자영업자 중 1인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72%에서 2020년 75%로 크게 높아졌으며, 이는 지난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이다(통계청, 2022). 그러나 1인 자영업자의 진입은 높은 반면에 자영업자의 2021년 월평균 사업매출액은 2,445만원으로 코로나 19가 발생한 2020년보다 266만원 줄었고, 이는 코로나 19 이전인 2019년 매출보다 28% 낮은 수준이다(한국은행, 2022).

본 연구는 자영업자의 소득에 주목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소득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다(안주엽·성지미, 2003). 주된 연구결과는 자영업자의 소득은 자영업자의 인적특성, 인적자본이 자영업자의 소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 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경영학부, 조교수, 01041603713@kookmin.ac.kr

** 와세다대학교, 사회과학부, 조교수, rec419@hanmail.net

***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drkim@kookmin.ac.kr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안주엽·성지미, 2003; 최강식·정진욱·정진화, 2005; 김기승·오유,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자영업자의 진입과 소득에 있어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기업가적 자본(Entrepreneurial Capital)이 중요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신재열·김종성, 2020), 선행연구에서 인적자본 중심으로 실증분석되어 왔던 자영업자의 소득결정요인을 기업가적 자본을 중심으로 탐색적으로 규명해 보는데 있다.

II. 선행연구문헌검토

본격적인 실증분석에 앞서 먼저 ‘자영업자와 소득’이라는 큰 연구주제 속에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국·내외 연구문헌을 통해 자영업자의 정의, 자영업자의 소득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요인을 이론적으로 검토한 후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이점을 통해 연구목적은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한다. 우선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자영업자를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나 특정한 사업체에 소속되지 않고 활동하는 작가, 배우, 프리랜서 등을 말하는 것’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합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황광훈, 2017).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 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으로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자’를 통계청의 정의에 따라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특정 사업체에 소속되지 않고 활동하는 프리랜서로 한정하고, 고용원이 있는 청년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자영업자의 소득결정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인적자본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인적자본이론은 1960년대 이후 Schultz(1963), Mincer(1974), Becker(1975)등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들은 인간의 자본적 가치 혹은 생산력의 크기를 증가시키므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높을수록 더 높은 소득을 얻는 것을 실증분석했다. 인적자본이론은 주로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교육과 소득에 관한 상관관계를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논의 되어 왔는데, Schultz(1963)는 교육 역시 자본과 마찬가지로 투자를 통한 수익을 창출하려는 자본이라는 전제하에 교육의 투자수익률이 물적 자본의 투자수익률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실증분석했다. 이후 Mincer(1974)는 임금함수 추정을 통해 교육이 생산성을 높이고 이것이 소득증가를 높인다는 인과관계를 규명했다.

임금근로자의 교육수준과 소득에 관한 국내연구에는 대표적으로 김강호(2009)는 청년패널조사 2007년 자료를 사용하여 임금근로자를 분석해 본 결과 노동시장 진입시 2~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에 비해 4년제 대학 졸업자 15.7%가 초기 임금프리미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김지하·우명숙·박상욱·김태우(2016)는 2010년도~2014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산출된 대학교육의 투자수익률은 남자 대졸자의 사회적 수익률은 7.01%이고 계열별로

는 의약계열 9.71%, 공학계열 7.65%, 인문사회계열 6.83%, 자연계열 6.05%, 예체능계열 4.36%로 나타났다. 여자 대졸자의 사회적 수익률은 6.37%이고 계열별로는 의약계열 8.85%, 공학과 인문사회계열 6.66%, 자연계열 4.58%, 예체능계열 2.16%로 나타나 남자 대졸자보다 각 계열별로 낮게 나타났다.

교육이 자영업자의 수익에 영향을 미친다는 대표적인 연구는 Rees & Shah(1986), Evans & Leighton(1989), Kawaguchi(2003)를 들 수 있는데,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교육이 소득에 더 높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분석했다. 자영업자의 인적자본과 소득에 관한 대표적인 국내연구로는 김기승·오유(2012)의 연구가 있는데, 한국노동패널조사 1998~2008년 자료를 사용하여 Hausman & Taylor 모형으로 교육수준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을 시도했다. 그 결과 자영업자의 교육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소득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투자수익률은 11.5%였다. 즉, 근로자 A가 근로자 B보다 교육연수가 1년 더 많으면 평균적으로 소득이 11.5% 더 많다는 것이다. 자영업자의 교육과 수익에 관한 최근 연구는 김명환·조용수·김기승(2022)가 있는데, 한국노동패널조사 2013~2019년 자료를 사용하여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교육투자수익률을 실증분석한 결과 임금근로자의 교육투자수익률은 소득분위에 따라 증가하였으나 자영업자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위소득 이상 자영업자에 있어 소득증대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서의 교육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자영업자의 소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중요변수는 기업가적 자본(Entrepreneurial Capital)이 있다. 자영업자와 기업가적 자본에 관한 선행연구는 자영업 진입에 관한 주요변수로 논의 되어 왔다. 기업가적 자본은 ‘기업가의 기업체를 운영하는 고유한 방식 또는 사업을 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하는 위험에 대한 기업가의 태도’로 정의할 수 있는데(Taylor, 2001), 선행연구에서는 개인의 기업가적 자본을 측정하기 위한 대리변수로 ‘부모님의 자영업 경험 여부’를 활용하고 있다. 기업가적 자본을 측정 위한 대리변수로 부모의 자영업 경험을 사용하는 이유는 부모가 가지고 있던 자영업과 관련된 기술, 지식, 숙련, 태도 등이 자녀에게 하나의 자본의 형태로서 이전되기 때문이다(Barnir & McLaughlin, 2011). 그 외 기업가적 자본에는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 등 다양한 개인의 성격적 특성인 기업가정신요소가 포함될 수 있다(신재열·김종성, 2020).

III. 연구 모형과 분석 변수

1. 연구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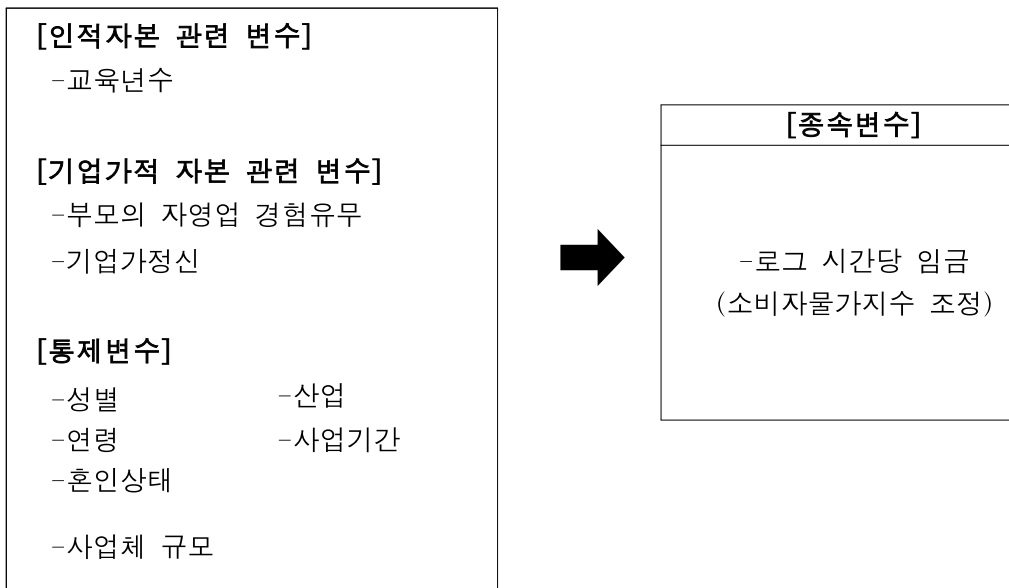
자영업자의 소득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 6차년자료에서 24차년도자료 중에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1998년에 1차 조사를 시작한 이후, 매년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2020년, 23차 조사까지 공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 관련 변수가

포함되기 시작한 6차년도(2003)이후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각 차수별로 분석에 포함된 사례수는 6차(1,364), 7차(1,401), 8차(1,522), 9차(1,450), 10차(1,455), 11차(1,424), 12차(1,712), 13차(1,667), 14차(1,585), 15차(1,586), 16차(1,540), 17차(1,457), 18차(1,470), 19차(1,487), 20차(1,469), 21차(2,272), 22차(2,093), 23차(1,987), 24차(1,960)이다.

2. 연구 모형 및 분석변수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자의 소득결정요인을 실증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했다.

[그림 1] 자영업자의 소득 결정 요인



종속변수는 소비자물가지수로 조정된 시간당 소득이며 정확한 추정을 위해 로그(Log)로 치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적자본 변수와 기업가적 자본 변수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인적자본 변수는 인적자본이론에 근거하여 교육년수를 분석에 투입하였다. 기업가적 자본은 부모의 자영업 경험과 기업가정신 변수로 측정하였다. 부모의 자영업 경험은 14세일때의 고용형태를 사용하였는데, 고용주, 자영자, 임금노동자로 구분한 후, 임금노동자를 기준으로 고용주와 자영자의 효과를 검토하였다. 기업가정신은 신재열·김종성(2020)이 사용한 자영업자 기업가정신 측정문항을 사용했다. 구체적인 질문 문항은 “어떤 일자리 또는 직장이 ‘좋은 일자리(직장)’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보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골라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1순위, 2순위)”이며, 선택지는 ‘(1) 안정적인 일자리 (2)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일자리 (3) 장래의 발전 가능성이 높

은 일자리 (4) 자신의 적성, 취향에 맞는 일자리 (5) 임금 또는 수입이 많은 일자리 (6) 자율성이 보장되는 일자리'이다. 본 연구에서는 안정성 추구, 수익 추구, 자율성 추구로 재분류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는데, 1순위나 2순위로 '(1) 안정적인 일자리'를 한번이라도 선택하였으며 안정성 추구로 분류하였으며, '(5) 임금 또는 수입이 많은 일자리'를 한번이라도 선택하면 수익 추구로 분류하였다. '(1) 안정적인 일자리'나 '(5) 임금 또는 수입이 많은 일자리'를 한번도 선택하지 않은 응답자는 자율성 추구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안정성 추구를 준거변수로하여 기업가정신의 효과를 측정하였다(신재열·김중성, 2020). 그 외 통제변수로는 성별, 연령, 혼인상태, 산업, 사업기간, 사업체규모를 사용했다. <표 1>은 대상 변수들의 기초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표 1> 분석 변수 기초통계

변인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비고	
[인적자원관련 변수]					
교육수준: 교육년수	30,901	12.3111	3.18		
[기업가적 자본 관련 변수]					
부모 고용형태: 고용주	29,960	0.1008	0.30	준거집단: 임금 노동자	
부모 고용형태: 자영자	29,960	0.6129	0.48		
기업가정신: 수익 추구	30,772	0.1718	0.37	준거집단: 안정성 추구	
기업가정신: 자율성 추구	30,772	0.4113	0.49		
[통제변수]					
성별	30,901	0.7065	0.45	0=여성, 1=남성	
연령	30,901	48.4234	9.44	18세부터 64세	
결혼상태: 미혼	30,901	0.0808	0.27	준거집단: 기혼(유배우자)	
결혼상태: 기혼(별거/이혼/사별)	30,901	0.0991	0.29		
산업: 농수산물업	30,848	0.1001	0.30	준거집단: 숙박/음식업	
산업: 제조업	30,848	0.1002	0.30		
산업: 전기/수도/하수/건설/설비	30,848	0.0664	0.24		
산업: 도소매업	30,848	0.2185	0.41		
산업: 운송업/장비임대/장비수리	30,848	0.1262	0.33		
산업: 금융/보험/부동산	30,848	0.0599	0.23		
산업: 정보통신/연구/방송오락	30,848	0.0654	0.24		
산업: 행정/교육	30,848	0.0645	0.24		
산업: 보건/의료/복지	30,848	0.0159	0.12		
산업: 기타서비스업	30,848	0.0669	0.24		
사업기간	30,615	12.9288	76.84		
사업체규모: 5인미만	30,864	0.9250	0.26		준거집단: 5인이상
[종속변수]					
로그 시간당 임금	30,763	0.1636	0.78	물가지수로 조정함	

IV. 분석결과

자영업자의 소득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자료를 활용하여 하우스만 테일러 분석(Hausman-Taylor estimator)을 실시하였다. 하우스만 테일러 분석은 공분산이 미관찰된 개인 수준의 무작위 효과와 상관관계가 있을 때 사용하는 분석 방법으로 불균형 패널(unbalanced panel) 데이터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법이다. 또한 시간불변 변수를 분석에 포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본 연구와 같이 시간불변 변수를 분석에 활용하는 연구에서 종종 사용하는 패널분석 기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에 관한 변수인 안정성 추구, 수익 추구, 자율성 추구가 미관찰된 개인수준의 무작위 효과와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신재열(2021)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소득성장곡선은 성별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2>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우선 인적자본과 관련하여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영업자의 시간당 소득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다. 따라서 임금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자영업자에게 있어서도 인적자본의 축적이 수익 창출에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기업가적 자본의 효과는 남성에 한정하여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14세 때 부모의 고용형태는 자녀의 시간당 소득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¹⁾ 기업가정신은 남성에게만 한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선, 주효과만을 검증한 모형1-1의 결과를 살펴보면 안정성을 추구할수록 자영업자의 시간당 소득이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상호작용항이 추가된 모형1-2를 보면 교육수준에 따라 기업가정신이 시간당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b=0.0074(0.00)*$). 교육수준이 낮을 때는 수익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태도를 가진 자영업자의 시간당 소득이 더 높지만,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안정성보다는 수익성을 추구하는 자영업자의 시간당 소득이 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가지는 결과인데, 자영업에서는 단순히 기업가정신 관련 변수, 즉 안정성 보다는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태도만으로 수익이 높아지지 않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아가 높은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가 기업가정신을 발휘하면(안정성보다 수익성을 추구하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소득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 및 인적자원 개발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체계적인 기업가정신교육, 대학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개발 및 지속적인 교육이 진행되어야겠다.

다만, 여성에 대해서는 기업가정신의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이는 자영업 내부에서도 성별에 따른 이질성 혹은 젠더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영업 노동시장에서 존재하는 불평등 구조가 여성들이 효율적인 기업가 정신의 발현을 억제하고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관련하여 신재열(2021)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성 자영업자들은 노동시장에서 경력이 증가함에 따라 시간

1) <표 2>에서는 고용주와 자영업자를 구분하였는데 고용주와 자영자를 구분하지 않더라도 부모의 자영업 경험은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효하지 않았다.

<표 2> 자영업자의 기업가정신 자본과 소득에 관한 분석결과

변인	남성		여성	
	모형1-1	모형1-2	모형2-1	모형2-2
상수		-1.668(0.10)***	-1.161(0.15)***	-1.203(0.16)***
[인적자원관련 변수]				
교육수준: 교육년수	0.1059(0.00)***	0.1046(0.00)***	0.0804(0.00)***	0.0840(0.00)***
[기업가적 자본관련 변수]				
부모 고용형태: 고용주	0.0532(0.05)	0.0535(0.05)	0.0798(0.07)	0.0804(0.07)
부모 고용형태: 자영자	0.0469(0.03)	0.0473(0.03)	0.0019(0.05)	0.0226(0.05)
기업가 정신: 수익 추구	-0.0325(0.01)**	-0.1249(0.04)**	-0.0016(0.2)	0.0869(0.06)
기업가 정신: 자율성 추구	-0.0303(0.00)***	-0.0365(0.03)	0.0145(0.01)	0.0848(0.04)*
[통제변수]				
연령	0.0107(0.00)***	0.0107(0.00)***	0.0034(0.00)	0.0034(0.00)
결혼상태: 미혼	-0.1548(0.03)***	-0.1540(0.03)***	-0.0268(0.05)	-0.0268(0.05)
결혼상태: 기혼(별거/이혼/사별)	-0.1507(0.03)***	-0.1502(0.03)***	-0.0594(0.03)	-0.0584(0.03)
산업: 농수산물업	-0.1186(0.04)**	-0.1187(0.04)**	-0.2296(0.09)*	-0.2296(0.09)*
산업: 제조업	0.3162(0.04)***	0.3165(0.04)***	0.1490(0.07)*	0.1511(0.07)*
산업: 전기/수도/하수/건설/설비	0.5251(0.04)***	0.5247(0.04)***	0.5921(0.18)**	0.5905(0.18)**
산업: 도소매업	0.1591(0.03)***	0.1595(0.03)***	-0.0481(0.04)	-0.0474(0.04)
산업: 운송업/장비임대/장비수리	0.2223(0.03)***	0.2230(0.03)***	0.0878(0.12)	0.0883(0.12)
산업: 금융/보험/부동산	0.3282(0.04)***	0.3278(0.04)***	0.2931(0.05)***	0.2932(0.05)***
산업: 정보통신/연구/방송오락	0.1531(0.03)***	0.1541(0.03)***	0.1040(0.07)	0.1031(0.07)
산업: 행정/교육	0.5029(0.06)***	0.5014(0.06)***	0.3436(0.06)***	0.3431(0.06)***
산업: 보건/의료/복지	0.3717(0.10)***	0.3726(0.10)***	0.1507(0.10)	0.1457(0.10)
산업: 기타서비스업	0.1295(0.04)***	0.1302(0.04)***	-0.0274(0.00)	-0.0276(0.00)
사업기간	0.0036(0.00)***	0.0036(0.00)***	0.0025(0.00)	0.0025(0.00)
사업기간(제곱)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사업체규모: 5인미만	-0.1994(0.01)***	-0.1999(0.01)***	-0.2001(0.03)***	-0.1989(0.03)***
[상호작용항]				
수익 추구*교육수준		0.0074(0.00)*		-0.0073(0.00)
자율성 추구*교육수준		0.0005(0.00)		-0.0059(0.00)
[통계치]				
Wald Chi2	1253.20***	1258.29***	371.87***	374.59***
Sigma_u	0.7837	0.7835	0.9683	0.9703
Sigma_e	0.4551	0.4551	0.4825	0.4824
Rho	0.7477	0.7477	0.8010	0.8017

주: 1) ***p<.001 **p<.01 *p<.05

당 소득도 꾸준히 증가하지만 여성들의 경우에는 자영업 경력이 증가하더라도 시간당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자영업 노동시장에서도 존재하는 구조적인 젠더 불평등을 지목하였다.

그 외 통제변수의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영업

수익률이 증가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연령이 증가하더라도 시간당 임금이 증가하지 않는다. 또한 남성들의 경우에는 기혼유배우자와 비교하여 미혼과 기혼무배우자의 시간당 임금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들은 혼인상태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없다. 성별에 관계없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5인미만 사업체인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에 비하여 시간당 임금이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업별로는 남성의 경우에는 숙박음식업을 기준으로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의 수익률은 더 낮았으나 그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시간당 임금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에는 숙박음식업 종사자를 기준으로 농수산업 종사자들의 수익이 더 낮고 제조업, 전기/수도/하수/건설/설비업, 금융/보험/부동산업, 행정/교육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의 시간당 임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남성과 달리, 도소매업, 정보통신/연구/방송오락, 보건/의료/복지, 기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의 시간당 임금은 숙박음식업 종사자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일부 산업에서는 성별에 따른 자영업 수익률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겠다.

V. 맺음말: 연구시시점과 정책적 함의

본 연구의 목적은 자영업자의 진입과 소득에 있어 기업가정신, 기업가적 자본이 중요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의 소득결정요인을 인적자본 및 기업가적 자본을 중심으로 탐색적으로 규명해 보는데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적자본과 관련하여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영업자의 시간당 소득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다. 이는 임금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자영업자에게 있어서도 인적자본의 축적이 수익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자영업자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기업가적 자본이 자영업자의 시간당 소득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소득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 및 인적자원 개발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겠다. 예를 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체계적인 기업가정신교육, 대학과 연계한 다양한 학위 연계 프로그램개발 및 지속적인 교육이 진행되어야겠다.

참고문헌

- 김강호(2009). “학력과 직업훈련 참여가 임금에 미치는 효과”,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제41권 제3호, p.123-p.151
- 김기승·오유(2012). “자영업 부문에 있어 교육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경제연구학회』, 제30권 제4호, p.31-p.61
- 김명환·조용수·김기승(2022).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분위별 교육투자수익률 비교분석”, 『경제연구』, 제40권 제1호, p.111-p.131
- 김지하·우명숙·박상욱·김태우(2016). “대학교육의 계열별 투자수익률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5권 제2호, p.255-p.280.
- 신재열(2021). “첫 일자리의 선택이 노동소득에 미치는 영향-첫 일자리 이후의 일자리 이행과 노동 소득의 변화에 관한 검토”, 『경제와 사회』, 제31권, p.210-p.252.
- 성지미·안주엽(2003).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 및 주관적 평가의 결정요인』
- 신재열·김종성(2020). “청년층의 자영업 진입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제15권 제1호, p.247- p.257.
- 최강식·정진욱·정진화(2005). “자영업부분의 소득분포 및 소득결정요인: 분위회귀분석”, 『노동경제논집』, 제28권 제1호, p.135- p.156.
- 한국은행(2022). 『2021년 3분기 기업경영분석』
- 황광훈(2017). “늘어나고 있는 청년자영업자”, 『고용이슈』, 한국고용정보원.
- Becker, G. S., 1975,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2nd ed*”,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Evans, D. S., L. S Leighton, 1989, *Some Empirical Aspects of Entrepreneurship*, American Economic Review, 79(3), 519-535.
- Kawaguchi., 2003, D., *Human capital Accumulation of Salaried and Self-employed Workers*, Labour Economics, 10, 55-71.
- Mincer, J., 1974, *Schooling, Experience Earning*,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Rees, H., A, Shah, 1986,. *An Empirical Analysis of self-employment in the UK*, Journal of Applied Econometrics, 11, 95-108.
- Schultz, T. W.,1963, *The Economic Value of Education*, Columbia University Press.

